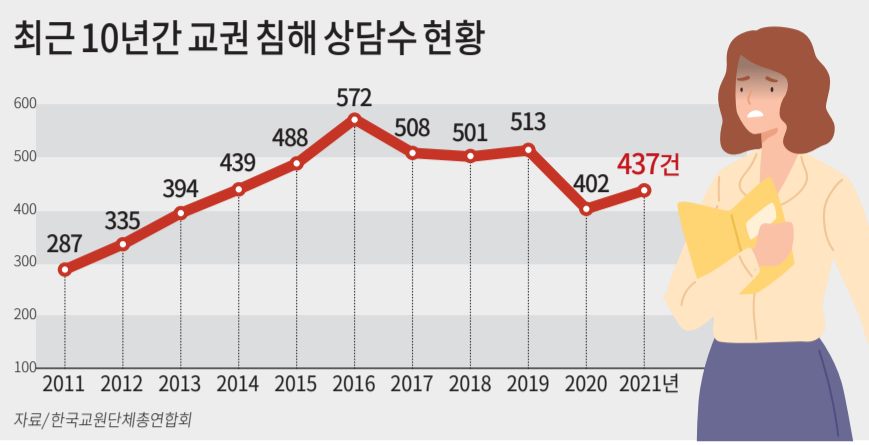


지난해 교권침해 437건... 갈등 주체 1위는 '동료 교직원'

교권침해 전년 비 10% 가량 증가
코로나 방역업무 부담에 혼란 가중
교직원 간 교권침해 155건 '최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2위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 학교 현장의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다시 증가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직원 간 교권 침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402건이던 2020년에 비해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에는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100건 이상 감소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 가고 대면수업이 늘면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43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생에 의한 피해가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7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피해도 124건에서 1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다. 2020년 143건

을 기록해 처음으로 학부모에 의한 침해(124건)를 앞섰고, 2021년에도 155건으로 집계돼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보다 많았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관리를 관리자, 담임, 보건교사 중 누가 할지 갈등이 되기도 했고, 백신 접종 후 병가에 들어가는 교사의 빈자리를 동료교사가 급히 채우면서 그로 인한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가 상호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직이 교사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고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과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전체 437건 중 148건(33.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한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수업방해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늘었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등에 시달렸다고 보고했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2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학교와 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각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별로는 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전문직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권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과 업무 분장 지침을 마련하고 노무갈등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중 교총 교권지원국장은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업무 분장 지침 등을 마련해 교직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노무갈등 해소를 위해 '1학교 1노무사' 제도나 지역교육청 별 노무사를 배치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 국장은 "반복되는 돌봄, 급식 등 공무원 파업이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직원 간 갈등과 교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운영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교권 보호 목적은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50대 독지가, KAIST에 300억 전 재산 쾌척

"출가분한 기분... 편히 잘 것" 소감
장학금·연구비 등으로 사용 계획

익명의 50대 독지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30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기부해 화제다. 기부자는 카이스트에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고, 학교 측은 기부금을 학생 장학금 및 의과학·바이오 연구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9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익명의 기부자는 "살아가는 데 필요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다"며 "젊은 나이에 기부하게 돼 이제부터는 출가분한 기분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카이스트는 에너지가 넘치면

서도 순수한 학교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며 "나의 기부가 카이스트의 젊음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결합해 국가 발전 뿐만 아니라 전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300억원 이상을 카이스트에 기부한 고액 기부자 중 최연소로 알려졌다. 자신을 위한 씬씬이엔 엄격했지만, 근검절약 정신으로 재산을 일궈 소외계층과 불치병 환자들을 10여 년 넘게 꾸준히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기부자가 더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부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는 계획을 숙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가장 큰 과급효과를 얻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교육을 통한 기부가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카이스트에 연락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기부처를 정한 배경에는 카이스트 출신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의 영향이 컸다. 모교 후배들을 채용하기 위해 애쓰는 지인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KAIST 출신은 열심히 한다. 그것도 밤을 새워서 열심히 한다"라는 답을 들은 이후로 카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및 의과학·바이오 분야의 연구 지원금으로 이번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노이즈 선택적 제거 생체모방소재 개발"

김태일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



인했다. 신호처리를 이용해 노이즈를 제거한 기존의 방법보다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얻는 것으로, 재료가 선택적으로 노이즈를

성균관대학교는 김태일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사진) 연구팀이 박병학 박사 주도로 거미 다리의 패드를 모사해 외부 노이즈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댐핑 소재 및 이를 이용한 전자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거미의 패드 원리를 모사해 필요한 영역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생체 신호를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노이즈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스트레인 센서와 결합해 목 진동, 심박수 등의 기계적 생체 신호를 노이즈 하에서 높은 신호대 잡음비로 읽을 수 있고, 심전도, 뇌파 등의 전기적 생체 신호 역시 노이즈 하에서 안정적으로 검출이 가능함을 확

담핑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의 학문균형발전지원사업,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2020년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시범사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해외연계부문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세계적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6일 게재됐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다양한 가족교육' 개최

세종대학교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1일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다양한 가족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달라 보여도 모두 같은 가족'이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나라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교육한다. 두 번째 주제는 '함께 하는 세상 모든 가족'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점검하기로 이뤄진다. 교육은 5월 11일 15시부터 17시까지이며, 온라인 실시간(Zoom)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국내 최초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설립

전국 12개 가톨릭계 대학 합심

전국 가톨릭계 대학이 국내 최초로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을 설립해 미래형 교양 교육모델 구현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내 12개 가톨릭계 대학이 대학 교육 발전과 전인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12개 가톨릭계 대학은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으로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상지대 ▲광주가톨릭대 ▲가톨릭꽃동네대 ▲대구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부



전국 12개 가톨릭계 대학이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설립을 위해 합심한다. /가톨릭대

산가톨릭대 ▲서강대 ▲수원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국 가톨릭계 대학들은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대학 설립 및 운영 ▲한국 가톨릭계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공동 연구 및 협력 등을 위해 합심하기로 결정했다. /이현진 기자

사이버한국외대, 우즈베크 현지교류 강화

나망간 세종학당 운영기관과 맞손

진행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코리아베스트아카데미(이하 나망간 세종학당)의 운영기관인 코리아베스트아카데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나망간 세종학당은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 중인 7개소 중 유일한 기업협업형 세종학당이다.

사이버한국외대와 나망간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양 기관은 학술 및 문화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한국어교육에 관한 협력과 교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자료의 교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언어교육에 특화된 사이버한국외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 세종학당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올바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수행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연구 및 교류를 담당하는 케이스터디 센터를 운영해 온·오프라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